국문

성명문**:** 포켓몬고 배틀 코리아 선발 기준에 대한 항의 및 개선 요구

존경하는 나이언틱 및 포켓몬고 배틀 코리아 대회 관계자 여러분께,

저희 포켓몬고 배틀을 사랑하고 즐기는 수많은 트레이너들은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내 공식 오프라인 배틀대회인 **'**포켓몬고 배틀 코리아**'**의 개최 소식에 깊은 기대와 환희를 느꼈습니다. 해외 대회 부럽지 않은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인터넷 중계**,** 고액 상품 등 전례 없는 규모의 대회에 한국 최강의 트레이너를 가린다는 슬로건은 그동안 오프라인 대회를 간절히 기다려온 저희에게 큰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회 참가자 선발 기준이 공개되고, 그 기준에 따라 초대장이 발부되면서, 저희는 심각한 우려와 깊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GO배틀리그 승률'이라는 전례 없는 기준은 대회의 본질과 목표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기존 배틀 매니아들을 배제하고 공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합니다.

1. 이 대회는 **‘**한국 최강의 트레이너**’**를 가릴 수 없습니다**.**

GO배틀리그는 승패에 따라 점수가 조정되고 비슷한 점수끼리 매칭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잘하든 못하든 꾸준히 플레이하면 승률이 **50%**에 근접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승률을 기준으로 '한국 최강의 트레이너를 가려라'는 홍보 문구는 명백한 자기모순이며, 대회의 권위와 진정성을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절대 최강자를 가릴 수 없는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대회를 기획한 의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2. 배틀 매니아들의 노력과 열정 무시

지난 **4**년간 해외에서는 꾸준히 리저널, 인터내셔널 등 오프라인 대회를 개최하고 절반 이상에서 실시간 중계를 제공하며 트레이너들의 실력을 겨룰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반면 국내 배틀 매니아들은 무대도 중계도 없는 온라인 월드 챔피언십 예선만을 전전하며 오프라인 대회를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첫 오프라인 대회에서 오히려 평소 배틀을 많이 하는 매니아들이 선발에서 배제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포켓몬고 배틀에 헌신해 온 매니아들의 노력과 열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3. **'**시즌 플레이 방식**'**에 따른 불공정한 선발 기준

최소 **250**판만 채우면 승률 기준으로 상위 **32**명을 선발하는 방식은, 시즌 초부터 꾸준히 플레이하며 높은 레이팅에 도달한 실력자들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즌 말에 GO배틀리그를 시작하여 낮은 랭크에서 높은 승률을 기록하는 플레이어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본계정으로 레전드를 달성한 후 시즌 말에 부계정으로 플레이하다 의도치 않게 대회 초대장을 받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성실하게 GO배틀리그를 플레이해온 유저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4. 대리 및 핵 사용 계정 초대의 심각성

더욱 충격적인 것은 대리 플레이 유저가 다수의 계정을 레전드 등급으로 올려주었으며, 이 중 일부 계정이 '포켓몬고 배틀 코리아' 초대장을 받았다는 제보입니다. 심지어 동일인이 초대받은 **2**개의 계정을 소유하고, 계정 이메일이 숫자 하나만 다를 정도로 유사하며, 핵 사용이 의심되는 계정까지 초대받았다는 제보는 이번 대회의 선발 과정이 얼마나 허술하고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대회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5. **'**배틀 활성화**'**라는 명분과의 모순

'GO배틀리그의 활성화와 더불어 더욱 많은 트레이너 분들께 대회 도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참가 난이도를 조정했다'는 주장은 '한국 최강의 트레이너를 가려라'는 캐치프레이즈와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최강자를 가리면서 참가 난이도를 조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일반 유저들에게 **e**스포츠의 재미를 선사하기는커녕, 오히려 허술하고 수준 낮은 대회라는 인식을 심어줄 뿐입니다. 이로 인해 외국 유저들에게 한국 배틀 수준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배틀에 대한 관심 증진이나 신규 유저 유입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 및 요구사항

저희 포켓몬고 배틀 매니아들은 **'배틀 유저 확대'**와 **'배틀 활성화'**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의 선발 기준은 저희의 열정을 짓밟고, 배틀 커뮤니티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매니아들을 배제하고 실력과 무관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대회는 결코 배틀 생태계를 튼튼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에 저희는 나이언틱 및 대회 관계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 현재의 불합리한 **'고배리 승률'** 선발 기준을 즉각 철회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발 기준으로 변경하십시오**.**
- 이번 대회가 다양한 유저들을 위한 대회라면**, '**최강자**'**는 떼고 **'**최강자**'**를 가리는 별도 대회를 개최하십시오**.**
- 향후 대회의 기획 및 선발 기준 논의 과정에 배틀 매니아 커뮤니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십시오**.**

이번 **'**포켓몬고 배틀 코리아**'**가 진정으로 한국 포켓몬고 배틀의 수준을 높이고, 모든 트레이너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5년 6월 12일

포켓몬**GO** 배틀을 사랑하는 트레이너 **152**인 일동 **(6.13** 업데이트**)**

팀나들	(포켓몬GO 배틀 전문 유튜버, 2023년 월챔 한국 지역 7위)
고튀	(포켓몬GO 배틀 전문 유튜버, 2024년 월챔 한국 지역 1위)
정적가든	(포켓몬GO 배틀 전문 유튜버)
동자개	(포켓몬GO 전문 유튜버)
삼치구이	(2022년 월챔 Top 16, 3년 연속 국가대표)
Yang	(2022년 월챔 Top 8, 한국 지역 1위)
로로이	(2023년 월챔 Top 8, 한국 지역 1위)
친다	(2023년 월챔 Top 24, 2년 연속 국가대표)
포리	(2025년 월챔 한국 지역 1위)
포엠	(최근 GBL 시즌 04.11 세계 1위, 2025년 월챔 한국 지역 2위)
판다, 시할	(월드 챔피언십 국가대표)

알렉, 드파, 이클, 발검, 에어팟프로, 태양호빵, 진숭, 혤밍, 용산사람, 범고래, Godpras, 더블유, 핀옥효, 채아파파, 리쌍, 혜림, 팬다, 축잘알, 우큐, 펌킨쭌이, 크항, 지플, 프롬, PodukLee, 여름이, 어느 애주가의 냥, 자요수빈, Black, 오랭, 시곤, JH Lee, 테무산공룡, 성현, 김당, 따또빠, inje, 라프라스주세요, 목포튜바, KimSungWoo, 극한, 덕배, 리거거, 델타, 난쟁이, 봉스, 케넨, 89evemon, 하고, 초민, 닉스, 떼껄룩, 자코비안, 팔로, 런치, 복귀유저, Makcha, 청승, 네이색조, 규, 퀄롭, Hsu513620, Siwon589174, Dependhead, wewe, 거모, 위피세븐, 칸더, 스위틱, 화학, 이시간, 루키, 드래펄트, 부기부, 나니, 나유리파, 우르자엘, 자게사, 굿파드, 알식, 노리치, 이꾼, 산본킹, 카르테노, 카땅, Chocopie, 퍼거쓴, 꼬부기, 지초이, 호야, 섀도우, 션, Help, NamgungYujin, Weeknda, 타이윤, 외눈, 무법자, 자몽, FrogWorld, 헥사, 양궁, 미로, newlifesul2, 휘경, C2H2Cl4, 127Nai, 저스, Viologist, 자시안, 무뚝, 형준, 난중, 주고, 졸린닭, 문어숙회, 계정26, 포포, 영능, 포고하는라쿤, 아이라, 함안, 카다모리, s9900s, podomilk, grossestichu, Dominance00N, 지너니, Ceda, 곽철홍, YimHero, 승호승, 족제비키우자, 놀라, Royalgeu, 제롬, 루기아럽, Boyscross1, sibayong, 0yellow1234, Raon

[성명문 추가 참여 ▸] https://forms.gle/qYx8BCnhGK11EEhA9

영문

Statement of Concern and Request for Improvement Regarding the Selection Criteria for Pokémon GO Battle Korea

To Niantic and the Pokémon GO Battle Korea Tournament Officials,

We, the many trainers who love and enjoy Pokémon GO battles, were filled with great excitement and anticipation upon hearing the announcement of the first official offline battle tournament in Korea: *Pokémon GO Battle Korea*. With an unprecedented scale including a dedicated esports arena, live internet broadcasting, and high-value prizes, the slogan “Crowning the Strongest Trainer in Korea” gave hope to those of us who have long awaited such an offline tournament.

However, upon the release of the selection criteria and the subsequent issuance of invitations, we were met with deep concern and disappointment. The unprecedented criterion of using GO Battle League win rates is fundamentally misaligned with the tournament’s purpose and spirit. Instead of identifying the most skilled battlers, it unfairly excludes dedicated battle enthusiasts and severely undermines the fairness of the competition.

We strongly protest the following issues and urgently demand corrective action:

1. This tournament cannot determine the “Strongest Trainer in Korea.”

The GO Battle League (GBL) matches players of similar ratings, and as such, win rates naturally converge towards 50% regardless of skill level if one plays consistently. Using win rate to identify the strongest trainer is inherently contradictory and damages the credibility and seriousness of the tournament. This selection method raises serious doubts about the organizers’ intentions.

2. Disregard for the dedication and passion of battle enthusiasts

While international regions have had multiple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Regional and International offline tournaments with live broadcasts, Korean battlers have been confined to online qualifiers for the World Championships with no offline events or broadcasts. Many have long awaited a chance to prove themselves on a proper stage. Yet this very first offline event has inexplicably excluded many of the most dedicated battlers, denying years of commitment and effort.

3. Unfair selection due to the “season play system”

The criterion of selecting the top 32 based on win rate after a minimum of 250 matches inherently favors players who start playing late in the season and accumulate high win rates against lower-ranked opponents. In contrast, skilled players who play from the start and reach higher ranks face tougher competition and are unfairly penalized. There are several reported cases where alternate accounts used at the end of the season unintentionally received invitations—this is deeply discouraging to players who participated honestly and consistently.

4. Serious Concerns About Boosting and Illegitimate Invitations

There are growing concerns that some individuals may have engaged in account boosting, climbing multiple accounts to Legend rank on behalf of others. While it's unclear whether payment was involved, several of these boosted accounts have reportedly received tournament invitations, despite not being played by their original owners. In one case, two boosted and invited accounts—allegedly belonging to the same person—had email addresses differing by only one digit, raising serious questions about why this wasn’t flagged during the verification process. One of the boosted accounts is also suspected of

cheating. These reports highlight significant flaws in the selection process and raise serious concerns about the fairness and credibility of the tournament.

5. Contradiction with the stated goal of “battle activation”

The justification that the selection was intended to "promote GO Battle League and provide more opportunities for more trainers" is completely at odds with the slogan of “crowning the strongest trainer.” A competition that claims to find the best must not lower the bar arbitrarily. Such a poorly designed approach not only fails to enhance interest in Pokémon GO esports but may leave the impression of a low-quality event. It may also mislead international audiences about the true level of Korean battlers and ultimately fail to attract new players or foster growth.

Conclusion and Demands

We, the passionate Pokémon GO battlers, genuinely wish to see battle participation and community growth. However, the current selection criteria trample on our passion and risk damaging the very foundation of the battle community. A tournament that excludes dedicated battlers and relies on criteria unrelated to actual skill will never sustain a healthy competitive ecosystem.

We therefore strongly demand the following from Niantic and the tournament organizers:

- Immediately revoke the unreasonable "GBL win rate" selection criteria and adopt a fair and rational system.
- If the tournament aims to include a wide range of players, remove the “strongest” label and hold a separate tournament to determine the top battlers.
- In future tournaments, actively engage with and incorporate the voices of the dedicated battle community during planning and decision-making.

We earnestly request that you listen to our voices so that this 'Pokémon GO Battle Korea' can truly elevate the level of Pokémon GO Battle in Korea and be a tournament that all trainers can take pride in.

June 12, 2025

All 152 Trainers Who Love Pokémon GO Battle (updated: June 13, 2025)

TeamNadl	(Pokémon GO Battle YouTuber, 7th in 2023 WCS Korea Playoffs)
Gojji0408	(Pokémon GO Battle YouTuber, 1st in 2024 WCS Korea Playoffs)
GFgarden	(Pokémon GO Battle YouTuber)
Dongjagae	(Pokémon GO YouTuber)
Buhtti	(2022 WCS Top 16, 2022-2024 WCS participant)
JBYang4	(2022 WCS Top 8, 1st in Korea Playoffs)
ROROI1230	(2023 WCS Top 8, 1st in Korea Playoffs)
CharmingChinda	(2023 World Championship Top 24, 2023-2024 WCS participant)
CharmingP0ri	(1st in 2025 WCS Korea Playoffs)
CharmingPoem	(GBL World Rank 1 (April 11, 2025), 2nd in 2025 WCS Korea Playoffs)
PandasticHiFive, kimkk8492	(WCS participant)

알렉, 드파, 이클, 발검, 에어팟프로, 태양호빵, 진숭, 헬밍, 용산사람, 범고래, Godpras, 더블유, 핀옥효, 채아파파, 리쌍, 혜림, 팬다, 축잘알, 우큐, 펌킨쭌이, 크항, 지플, 프롬, PodukLee, 여름이, 어느 애주가의 냥, 자요수빈, Black, 오랭, 시곤, JH Lee, 테무산공룡, 성현, 김당, 따또빠, inje, 라프라스주세요, 목포튜바, KimSungWoo, 극한, 덕배, 리거거, 델타, 난쟁이, 봉스, 케넨, 89evemon, 하고, 초민, 닉스, 떼껄룩, 자코비안, 팔로, 런치, 복귀유저, Makcha, 청승, 네이색조, 규, 퀄롭, Hsu513620, Siwon589174, Dependhead, wewe, 거모, 위피세븐, 칸더, 스위틱, 화학, 이시간, 루키, 드래펄트, 부기부, 나니, 나유리파, 우르자엘, 자게사, 굿파드, 알식, 노리치, 이꾼, 산본킹, 카르테노,

카땅, Chocopie, 퍼거쓴, 꼬부기, 지초이, 호야, 섀도우, 션, Help, NamgungYujin, Weeknda, 타이윤, 외눈, 무법자, 자몽, FrogWorld, 헥사, 양궁, 미로, newlifesul2, 휘경, C2H2Cl4, 127Nai, 저스, Viologist, 자시안, 무뚝, 형준, 난중, 주고, 졸린닭, 문어숙회, 계정26, 포포, 영능, 포고하는라쿤, 아이라, 함안, 카다모리, s9900s, podomilk, grossestichu, Dominance00N, 지너니, Ceda, 곽철홍, YimHero, 승호승, 족제비키우자, 놀라, Royalgeu, 제롬, 루기아럽, Boyscross1, sibayong, 0yellow1234, Raon